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브렉시트,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

2016. 6. 27

투자전략팀
Strategist/Economist 홍춘욱
02) 3787-4964
chunukhong@kiwoom.com

키움증권

이슈분석

Contents

I. 브렉시트의 원인은? 3

>> 영국 EU이탈로 금융시장 패닉 3
>> 영국 내 이민자의 유입에 대한 반감 3
>>1980년대 이후 지속된 세계화 흐름에 대한 반감 4

II.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는? 6

>>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6
>> 영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충격 받을 듯 7
>> IMF, "브렉시트 시, 2016년 영국 GDP 성장률 0.8%포인트 하락할 것" 8

III. 관건은 추가적인 EXIT 발생 여부 9

>> 영국 경제 고난은 유럽 금융시장 참가자 및 국민들에게 충격 줄 것 9
>>스페인 총선 결과 10

IV. 시나리오별 자산 배분 전략 11

>>Base Scenario(가능성 70%) 11
>>Worst Scenario (가능성 30%) 13

V. 6월 다섯째 주 주간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 14

>>> 브렉시트의 원인은?

브렉시트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화' 진전에 따른 선진국의 불평등 심화 때문. 특히 2015년부터 본격화 된 난민 유입으로 '공동체파괴.재정부담' 우려가 부각된 것이 브렉시트로 이어졌음. 브렉시트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각국의 정치지형. 영국에 이어 다른 유럽국가의 EU 이탈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이는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 경제는?

IMF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경제가 ① 교역 감소 ② 자본수익률 하락에 따른 자금 유출 ③ 글로벌 금융센터로서의 지위 상실 충격으로 향후 4년간 최악의 경우 5.8%의 성장률 하락을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

>>> 관건은 추가적인 EXIT 발생 여부

당사는 여러 충격 중에서도 EU 내 분리 독립 운동 세력의 지지율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최근 YouGov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이 EU 탈퇴시 연쇄적인 EU탈퇴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응답에서 주요국 국민 대부분은 '탈퇴가 일어날 것'이라 응답. 추가적인 탈퇴 국가 발생시 남유럽 재정위기가 발생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

참고로 6월 26일 진행된 스페인 총선 결과, 제 1당인 국민당 지난 12월보다 13석 증가한 반면 반EU 정당 포데모스는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를 보였음.

>>> 시나리오별 자산 배분 전략

당사의 Base Scenario(실현 가능성 70%)는 영국경제와 금융시장의 부진 속에서 EU이탈의 비용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EU 이탈을 주장하던 세력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 KOSPI는 PBR 0.90배 수준(1,850pt) 전후에서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반면 Worst Scenario(실현 가능성 30%)는 EU이탈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의 힘이 강화되며 추가적인 이탈 가능성이 부각되는 것. 이 경우 KOSPI는 글로벌 금융위기 최저점 PBR(0.77배, 1,703pt)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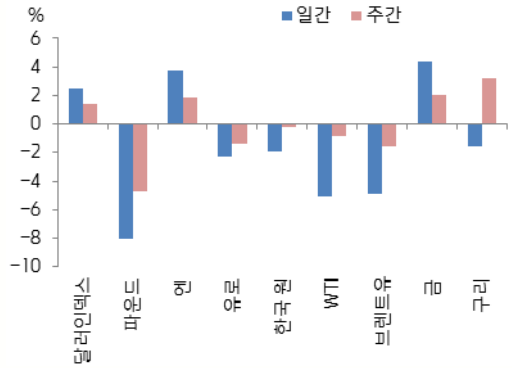
I. 브렉시트의 원인은?

>>> 영국 EU이탈로 금융시장 패닉

지난 주말(24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영국 국민들은 EU 이탈에 찬성(51.89%)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율도 높았고 EU 잔류가 여론이 높았던 젊은층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지만, 대다수 영국 국민들은 EU 이탈에 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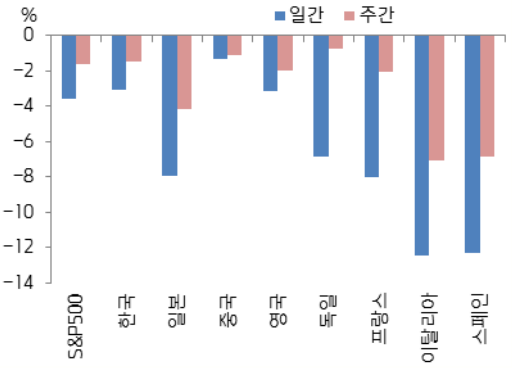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이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낮게 보았기에, 브렉시트의 충격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외환시장에서 영국 파운드/달러는 한때 11% 넘게 하락했으며(파운드화 약세), 남유럽 그 가운데에서도 이탈리아 증시는 사상 최악의 날(-12.48%)을 보냈다.

브렉시트 단행 후 금융시장(6월 24일)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외환시장은 달러대비 절상률

브렉시트 단행 후 금융시장(6월 24일)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영국 내 이민자의 유입에 대한 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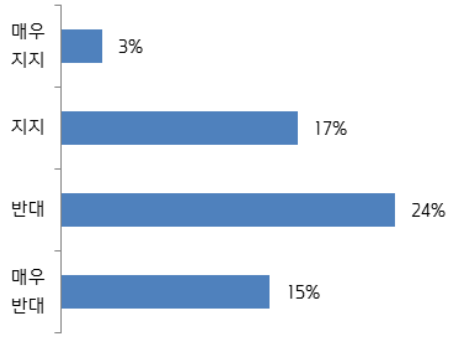
브렉시트가 단행되는 순간 금융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국 국민들은 왜 EU 탈퇴에 찬성표를 던졌는가?

브렉시트를 유발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영국 내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1월 시행된 영국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최근 영국의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7%에 불과할 정도로 떨어졌다.

특히 6월 하순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이민자수가 정부의 예측(10만 명 전후)보다 훨씬 더 많은 3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며 브렉시트 관련 찬반 여론이 뒤집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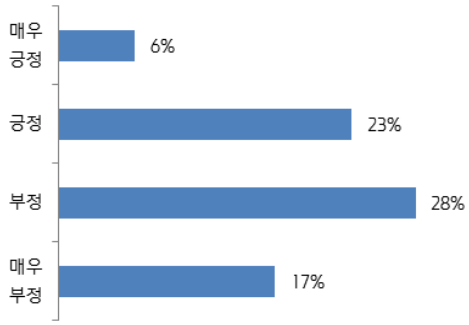
영국 정부 이민 정책에 대한 설문 응답(2016년 1월)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평가



자료: YouGov, 키움증권

이민이 영국에 미치는 영향



자료: YouGov, 키움증권

>>> 1980년대 이후 지속된 세계화 흐름에 대한 반감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분석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Britain votes to leave the EU, 2016.6.24)에 따르면, 런던과 스코틀랜드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부 잉글랜드와 동부 잉글랜드 등 이른바 쇠퇴한 과거의 제조업 중심지에서 브렉시트 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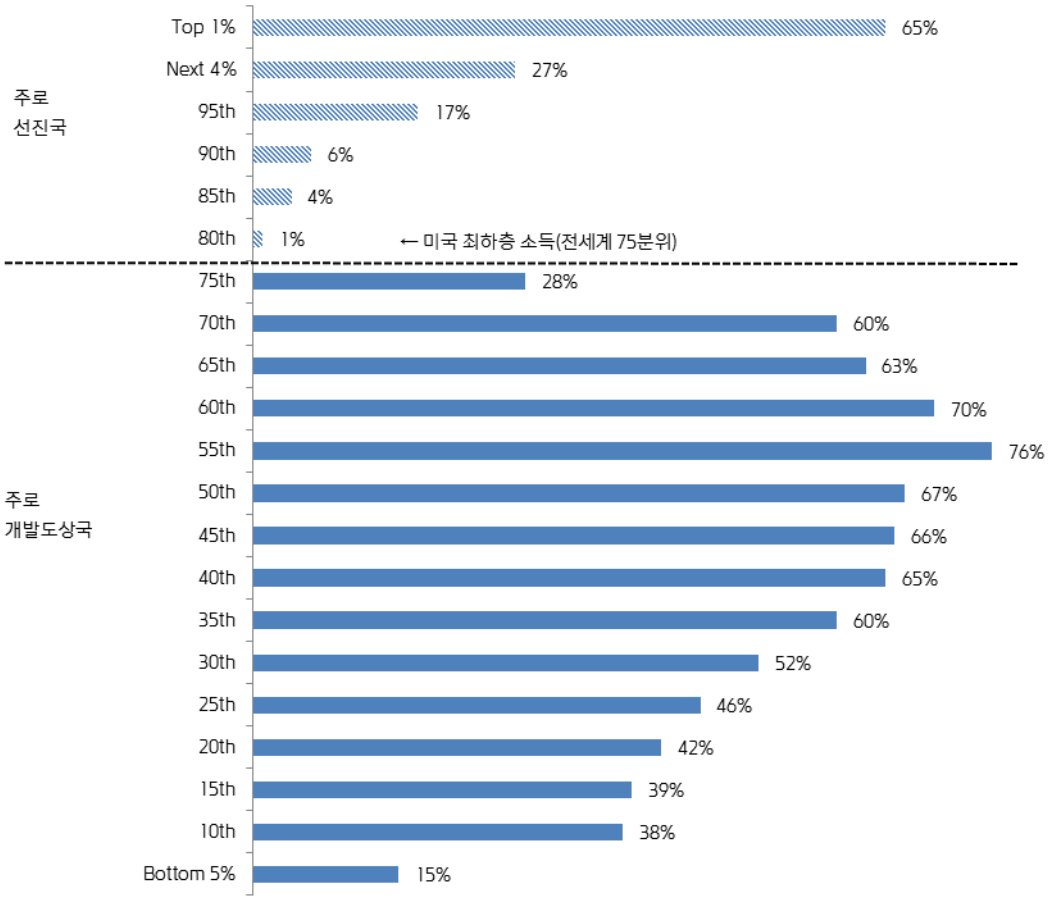
쇠퇴한 제조업 중심지 주민들이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세계화'로 인해 그들이 일자리를 잃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최근 발간된 세계은행의 보고서 "세계의 소득 분포 변화: 베를린 장벽 붕괴부터 대불황까지"[1]에 따르면, 선진국 중하층의 소득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나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고, 특히 유럽연합이 자유로운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정책(쉥겐조약)을 추진함에 따라 선진국 국민들은 이중적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자국에서 생산된 비싼 제품 대신 중국 등 신흥국에서 생산된 저가의 공산품이 유입되며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며, 더 나아가 동유럽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유입되며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동부 잉글랜드 등 쇠퇴한 제조업 지역의 주민들이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것은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1] Lanker, Christoph & Milanovic, Branko, 2013, "Global income distribution: from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o the great recession", World Bank.

글로벌 소득 변화율(1988~2008년)



자료: Lanker&Milanovic(2013), WSJ, 키움증권.

II.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는?

>>>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일단 먼저 점검할 부분은 향후 일정이다. 영국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영국 의회는 EU 이탈에 대한 헌법을 수정해야 된다. 이후, EU정상회담에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탈퇴의사 통보를 해야 되며, 유럽연합에서는 탈퇴 관련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협상이 완료된다 해도 각국 의회의 표결이 필요하기에, 영국의 실질적인 탈퇴는 아직 머나먼 미래의 일이다.

이런 절차 때문에 도널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은 "영국과의 협상이 2년 내에 끝나더라도 유럽 의회뿐만 아니라 27개 회원국이 전체 결과를 승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성공 보장 없이 최소 5년이 걸릴 예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영국 EU 탈퇴 절차

	일정	내용
1	영국, 의회 EU 탈퇴 확정	조약 변경을 위한 헌법 수정 절차 진행
2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탈퇴 의사 통보	의사 전달 이후 2년 내 협상 완료해야 함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있으면, 협상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3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EU 협상안 가이드라인 마련	
4	유럽집행위로부터 추가 협상 절차 발생 가능 - 유럽집행위, 유럽연합 이사회에 추가 협상 절차 제안 - 유럽연합 이사회 추가 협상 절차 동의 - 유럽집행위, 협상단과 특별위원회와 함께 협상 착수 - 유럽의회, 새 협상절차에 조언 또는 다수결로 협상안 인가 - 유럽연합 이사회, 새 협상안에 동의 - 개별회원국, 국가별로 새 협상안 비준	
5	유럽집행위, 영국과 협상 착수 / 완료	
6	유럽의회, 다수결로 탈퇴 협상안 인가	
7	EU 정상회의에서 다수결로 협상안 최종 결정	가중 다수결 제도 적용: 27 개국 가운데 20 개국의 찬성과 동시에 이 20 개국의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를 넘겨야 함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영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충격 받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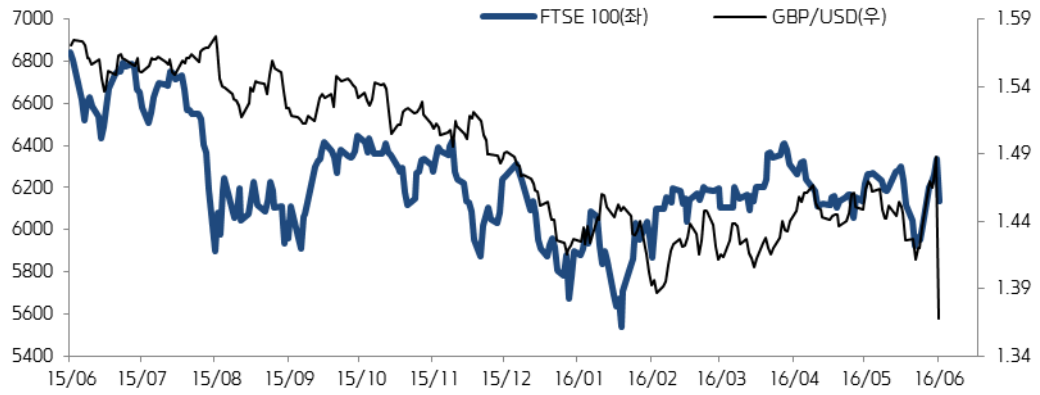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나긴 EU 탈퇴 일정으로 인해 영국 경제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 될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은 제일 먼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지난 주말 파운드화의 약세가 출현하는 가운데 주가가 폭락한 것처럼, 영국의 금융시장은 상당기간 높은 변동성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제금융센터로서의 런던의 지위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다(아래 그림 참조).

최근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 보고서[2]에 따르면,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금융 산업의 비중은 무려 8.0%에 이르며 전체 고용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이른다. 특히 이들 금융 산업 종사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 산업의 비중을 넘어서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로 부인하기는 했지만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영국에 위치한 유럽 본사(2,000명 규모)를 아일랜드의 더블린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옮긴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런던의 지위 하락을 예상하는 금융기관이 많다.

지난 1년간 영국 파운드 및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2] IMF, "UK, "Financial Sector Assesment Program", 2016. 6.

>>> IMF "향후 4년간 영국 GDP 성장률, 최대 5.8%포인트 하락"

이상과 같은 금융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영국 경제는 교역 및 외국인 자금의 이탈로 큰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IMF가 발간한 또 다른 보고서[3]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경제가 ① 교역 감소 ② 자본수익률 하락에 따른 자금 유출 ③ 글로벌 금융센터로서의 지위 상실 영향으로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IMF는 영국의 성장률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예측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영국이 EU를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유럽경제지역(EEA) 형태[4]로 묶여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EU와의 자유로운 교역. 여행이 가능한 EEA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2016~2019년 영국 GDP는 총 1.5% 포인트 둔화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영국이 EEA 형태로 EU와 연결되는 것을 EU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두 번째 시나리오, WTO 형태), 2016~2019년 영국 GDP는 무려 5.8% 포인트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질 경제성장률					
기존	1.9	2.2	2.2	2.1	2.1
EEA 형태	1.7	1.4	1.8	2	2.1
WTO 형태	1.1	-0.8	0.6	1.7	2.6
실업률					
기존	5	5	5.1	5.3	5.3
EEA 형태	5.1	5.3	5.4	5.5	5.4
WTO 형태	5.2	6	6.5	6.1	5.8

자료: IMF, 키움증권.

[3] IMF, "United Kingdom: Selected Issues", 2016. 6.

[4] EEA(European Economic Area)는 EU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EU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단일 통합시장을 지칭한다. EEA 역내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역내 국민들의 여행, 거주, 노동에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는다. EU와 EEA의 차이점은 EU협정에 구속되느냐, EU 입법권을 가지고 있느냐, 독립적 무역정책이 가능하냐에 있다.

III. 관건은 추가적인 EXIT 발생 여부

>>>영국 경제 고난은 유럽 금융시장 참가자 및 국민들에게 충격 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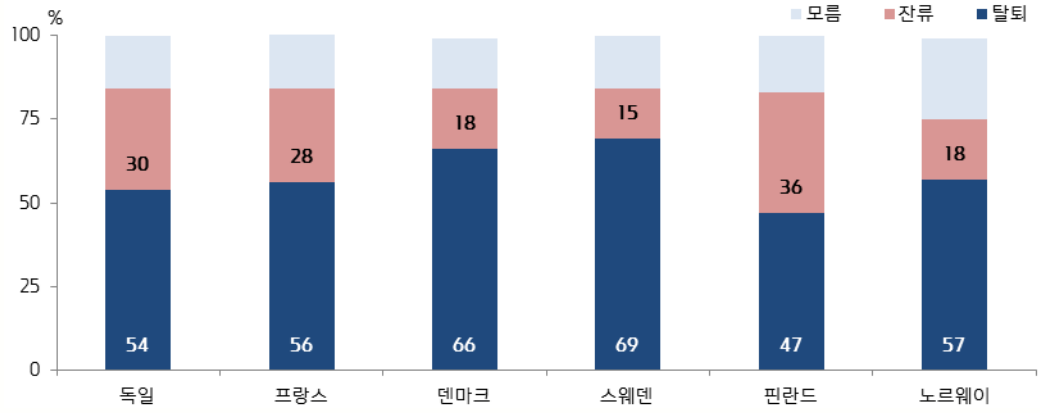
당사는 여러 충격 중에서도 EU 내 분리 독립 운동 세력의 지지율 변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래의 〈그림 4〉에 나타난 것처럼, 최근 YouGov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이 EU 탈퇴시 연쇄적인 EU 탈퇴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응답에서 주요국 국민 대부분은 '탈퇴'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물론 금융시장의 혼란과 경제 부진 우려가 부각되는 만큼, EU 내 추가적인 분리 독립 움직임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Base Scenario).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스페인의 포데모스 등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 추가적인 이탈 국가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 금융. 경제 여건을 전망함에 있어, 유럽 주요국의 정치지형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연쇄적인 EU 탈퇴가 일어날 것인가?



자료: YouGov,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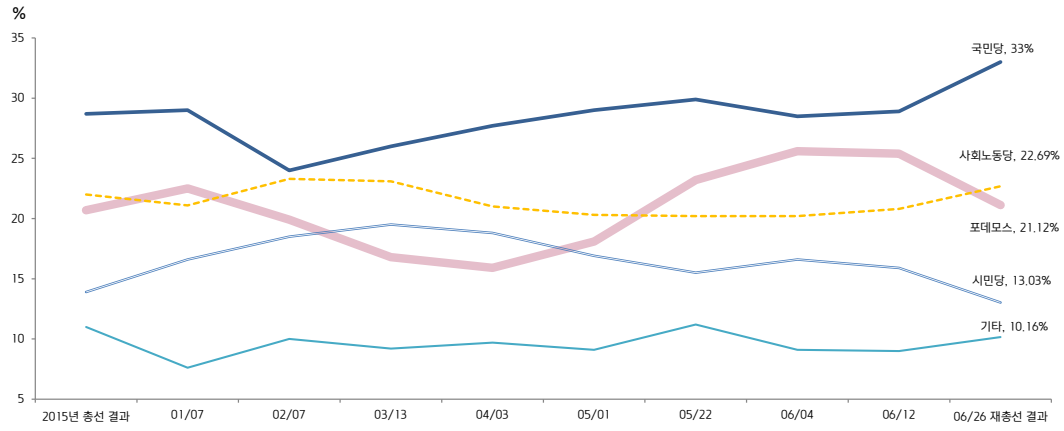
>>> 스페인 총선 결과

이런 측면에서 6월 26일 스페인 총선은 시장의 흐름을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였다. 반EU 및 긴축반대를 주장하는 좌파정당, '포데모스'가 어떤 성과를 올리느냐가 향후 추가적인 Exit 가능성을 점검하는 데 도움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스페인은 2015년 12월 20일 총선을 치렀으나, 의회 과반을 차지하는 연정이 성립하지 않아 정부 구성에 실패했고, 결국 2016년 6월 26일 재선거가 시행되었다. 출구조사에서는 반EU 및 긴축반대를 주장하는 '포데모스'가 2당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도됐으나, 실제 개표에서는 기존의 제 1당이었던 국민당이 13석이 증가했고 '포데모스'는 2석 증가에 그쳤다.

제 1당인 국민당 의석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브렉시트 이후 지난 주말(24일) 스페인 증시가 12.35%나 급락하는 등 불안해지자 표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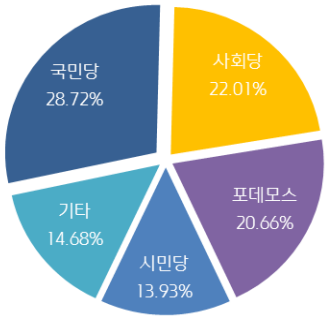
스페인 각 정당 여론조사 및 선거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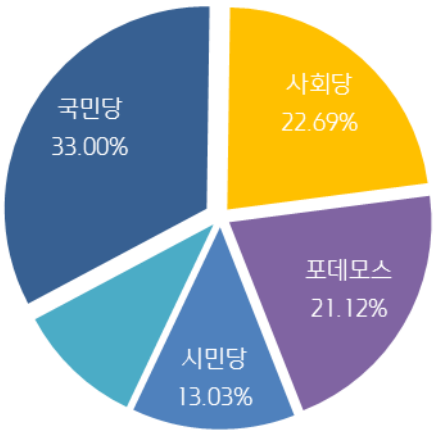
자료: Metroscopia, 키움증권

스페인 각 정당 총선 결과 (2015년 12월 총선 및 2016년 총선)

2015년 12월 총선 결과



2016년 6월 재총선 결과



자료: Metroscopia, 키움증권

Ⅳ. 시나리오별 자산 배분 전략

>>>Base Scenario(가능성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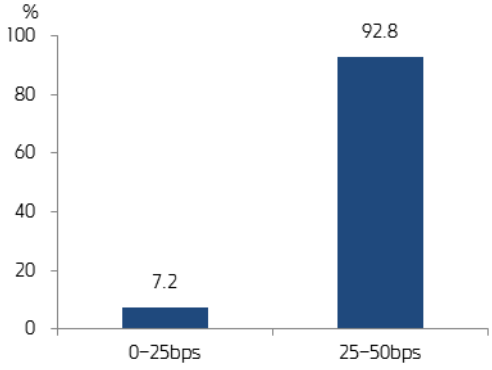
브렉시트 이후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결국 '추가적인 Exit' 여부에 달려 있으며, 6월 26일 스페인 총선 결과에서 보듯 브렉시트 이후의 금융시장 혼란을 계기로 '추가적인 Exit'을 주장하던 정치 세력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6월 27일 열리는 독일·프랑스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유럽 주요국 정상이 브렉시트 이후의 금융시장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도, 단기간에 충격이 진정되는 Base Scenario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은 조기에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국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 및 매력적인 Valuation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KOSPI(2016. 6. 24), 1,925.24pt 기준 PBR 0.87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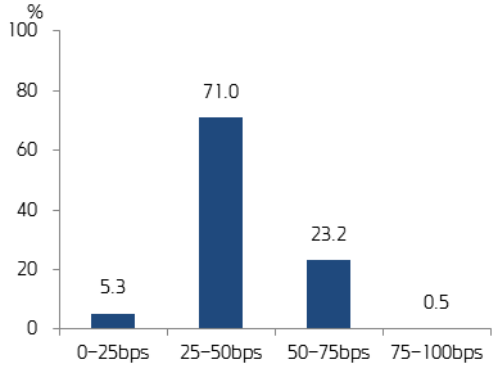
이 경우 KOSPI 저점은 PBR 0.90배 수준(1,850pt) 전후에서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정을 주식비중 확대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경기선행지수가 반등하며 수출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수출관련 대형주의 상대적인 탄력이 강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7월 금리 전망



자료: CME, 키움증권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12월 금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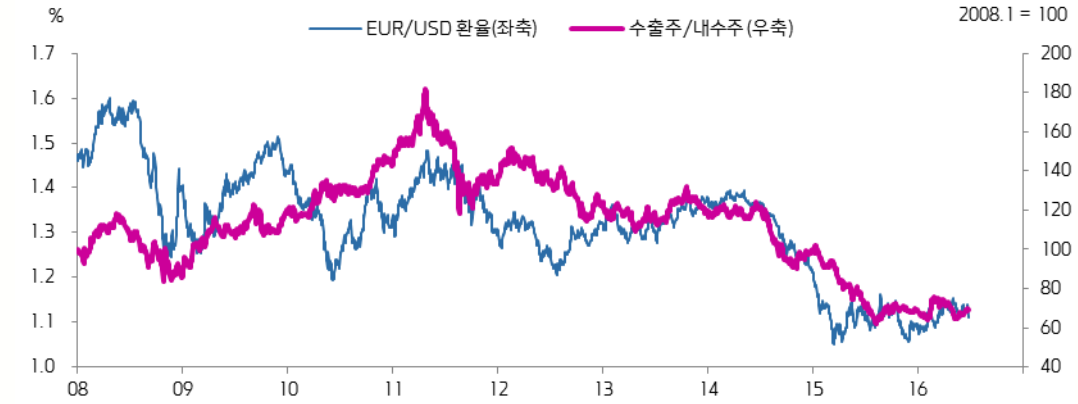


자료: CME, 키움증권

OECD 경기선행지수, 한국 수출에 6개월 선행

자료: OECD, Bloomberg, 키움증권.

Euro/USD 환율과 수출주/내수주 상대강도 추이



자료: Fnguide, 키움증권.

주: 수출주는 에너지, 화학, 금속, 자동차, 운송, 반도체, 하드웨어, 디스플레이업종지수 평균.
내수주는 증권, 보험, 은행, 음식료, 생활용품, 유통, 미디어, 통신, 유틸리티업종지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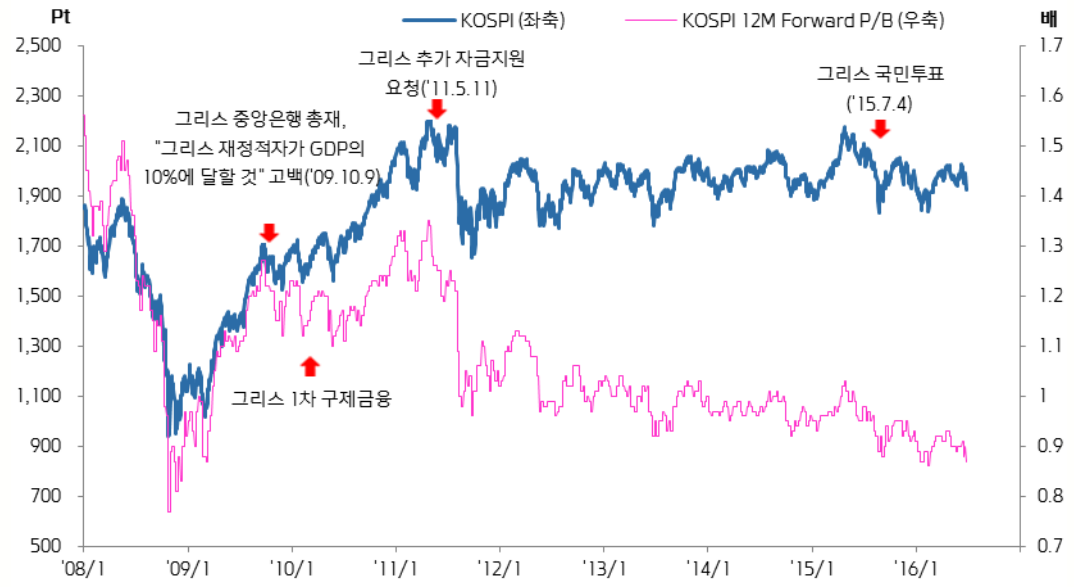
>>> Worst Scenario (가능성 30%)

당사의 기대와 달리 영국 이외에 다른 나라로 EU 이탈의 움직임이 부각되는 경우, 남유럽 국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Worst Scenario(가능성 30%)가 실현될 경우, 세계경제는 다시 하강 위험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어 KOSP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저점 PBR(0.77배, 1,703pt)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Worst Scenario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정치 지형 변화'가 될 전망이며, 분리독립을 표방하는 정당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더 나아가 다수를 점할 경우에 남유럽 금융위기로 전염될 전망이다. EU의 해체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남유럽 국가의 은행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4일 남유럽 국가인 이탈리아 주가지수 -12.48%, 스페인 -12.35%, 그리스 -13.42%).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의 공격적인 통화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도 Bank-Run 위험이 부각되는 가운데 퇴색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경우, 시장의 추가적인 조정에 대비하여 Low-Vol 및 경기방어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KOSPI와 PBR(12M Forward)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V. 6월 다섯째 주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

6 월 27 일 (월)	6 월 28 일 (화)	6 월 29 일 (수)	6 월 30 일 (목)	7 월 1 일 (금)
뉴질랜드 5 월 무역수지 **미국** 6 월 달라스연은 제조업 지수 6 월 PMI 서비스업지수 5 월 상품무역수지	**한국** 6 월 소비자동향조사 **미국** 1 분기 GDP 성장률(F) 6 월 소비자신뢰지수 6 월 리치몬드연은 제조업 지수 4 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API 원유재고보고서	**한국** 6 월 기업경기실사지수 6 월 경제심리지수 **일본** 5 월 소매판매 **독일** 6 월 소비자물가지수 **미국** 5 월 개인소득 및 지출 5 월 PCE 가격지수 5 월 잠정주택판매 EIA 원유재고보고서	**한국** 5 월 산업활동동향 **일본** 5 월 산업생산 **영국** 1 분기 GDP 성장률(F) 5 월 경상수지 **유로존** 6 월 소비자물가지수 ECB 통화정책회의록 **미국** 6 월 시카고 PMI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한국** 니케이 PMI 제조업지수 6 월 소비자물가지수 5 월 무역수지 **일본** 5 월 가계지출 5 월 실업률 2Q 단칸제조업지수 2Q 단칸비제조업지수 **중국** 6 월 PMI 제조업지수 6 월 PMI 비제조업지수 6 월 Caixin PMI 제조업지수 **유로존** 6 월 유로존 PMI 제조업지수 **미국** 6 월 PMI 제조업지수 6 월 ISM 제조업지수 6 월 자동차판매량 5 월 건설지출
6 월 26 일 (일) **스페인 총선**				
27일 프랑스, 독일 정상회담 프랑스, 이탈리아, EU의장 회담	28일 EU 정상회담(영국 포함)	29일 EU 정상회담(영국 제외)		
이스라엘 통화정책회의		Janet Yellen 연준의장 Mario Draghi ECB 총재 Mark Carney BOE 총재	James Bullard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홍콩 캐나다 휴장 미국 조기마감 Loretta J. Mester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자료: 각 언론사, 키움증권

요일	한국증시에 영향을 줄 이슈	요일별 주요 내용
월요일	금) 브렉시트 투표 결과 일) 스페인 총선 결과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는 브렉시트 현실화로 크게 하락했다. 미 증시 또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급 추진 소식에도 불구하고 EU 연쇄이탈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자 재차 낙폭을 키우며 마감했다. 월요일 한국증시는 반발 매수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일요일 스페인 총선에서 제 1당인 국민당의 의석수가 13석 증가했다. 브렉시트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반EU를 내세운 포데모스 보다 제 1당인 국민당에 힘을 실어준 선거 결과였다.
화요일	월) 달라스 연은지수 월) 프랑스, 독일 정상회담 프랑스, 이탈리아, EU의장 회담 화)기재부 추경계획 발표	월요일 글로벌 증시는 스페인 총선결과 반EU 정당인 포데모스가 제2당으로 약진했다는 점이 부담이 돼 부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프랑스와 독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재정지출 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다면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화요일 한국증시는 프랑스-독일 정상회담 결과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된다면 EU정상회담 기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날 기재부에서 '추경'계획 발표가 있는데 시장 예상 10~15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우호적이다.
수요일	화) 미국 1분기 GDP성장률 화) EU 정상회담(영국 포함)	화요일 글로벌 증시는 영국이 포함된 EU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달려있다. EU에서는 브렉시트 개시를 빨리 하고 싶어하며, 영국은 최대한 느리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 이날 많은 내용이 언급 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일 한국 증시는 이날 있을 EU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목요일	수) 미국 PCE가격지수 수) 옐런, 드라기, 카니 발언 수) EU 정상회담(영국 제외)	수요일 글로벌 증시는 영국이 제외된 EU정상회담에서 영국 브렉시트 원인이었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돼 양호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옐런, 드라기, 카니 총재 토론에서 유동성 공급관련 내용이 언급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또한 우호적이다. 목요일 한국 증시 또한 EU정상회담 결과로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요일	금) 중국 PMI제조업지수 금) 중국 차이신 제조업지수	목요일 글로벌 증시는 EU정상회담 이후, 파운드화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금요일 한국증시 또한 여전히 브렉시트 이슈에 따른 파운드화 등락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날 장중에 발표되는 중국 제조업지표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중국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호할 것으로 예상한다.